

시끌벅적 e-스타



수감·동전이 주인공... 파격적 UCC 인기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UCC(사용자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에 등장하는 소재가 다양하다. 인물이나 동물 중심이 아니다. 스테이플러를 비롯해 휴지와 동전을 소재로 사용하는가 하면 수갑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 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많고 파격적이다. 대학생연합광고동아리 에드플레이시가 만든 동영상은 서류를 묶는데 사용하는 스테이플러가 주인공이다. 다양한 크기의 스테이플러가 한 번 찍을 때마다 나는 소리를 절묘하게 모아 만든 연주 동영상으로, 이곳저곳으로 퍼날라지면서 반응이 폭발적이다. 동전도 인기 아이템. 수십만개의 동전 도미노

동영상은 지난해부터 네티즌들의 클릭 횟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방·거실·부엌 바닥에서부터 책상 위·싱크대·서랍장까지 세워져 있는 수십만개의 동전이 차례로 넘어지는 동영상. 2분 20초짜리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세웠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머리핀과 수갑도 등장했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수갑 풀기 동영상은 머리핀을 구부려 수갑에 넣어 움직이면 5초 안에 수갑이 풀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범한 휴지를 이용해 장미를 접는 동영상이나 손을 이용한 핸드 드럼 연주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59 '짚신에는 짚신짝이 어울린다'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미혼남이라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본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의 수준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옛말에 '짚신도 짝이 있다'는 말은 언뜻 듣기에 남을 비방하고 깎아 내리는 뜻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선연적이고 경험적인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말이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젊은 싱글들을 보면 부러울 정도로 사람마다 개성 있고, 아름답게 보인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오늘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일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짚신도 짝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맞지만 이 말을 '짚신에는 짚신짝이 어울린다'라는 말로 바꿔 인용하고 싶다. 짚신을 신는 사람은 짚신 짝이 잘 어울리지 구두 짝은 안 어울린다. 미친한 짚신이라도 분명 어울리는 짝이 있고 신발은 짝이 있어야 편하고 어울린다. 짚신을 신는 사람이 구두 짝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면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게 타인이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구두 짝을 달라고 하면, 이번에는 화를 내거나 매를 들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미팅 프로그램은 많다. 주변을 둘러보면 내 짝이 될만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자기에게 맞고

스스로 점검해 본 후 짚신을 찾자

안 맞는 사귀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서로 같이 서 봐야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결혼은 '안정욕구'와도 관련이 깊다. 삶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고 부부간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려 하는 역할과,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도에 기인한다. 짚신으로서 무엇보다 신었을 때 몸도 마음도 편안하지? 발 보호 기능이 충분한지? 튼튼한지?, 비나 눈이 올 때나 장거리를 갈 때, 수선훈 쓸 수 있는지 등, 그리고 평생 아껴줄 마음의 각오가 되어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본 후라면 짚신도 짝이 있다는 말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나는 자신한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 (www.dak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뉴스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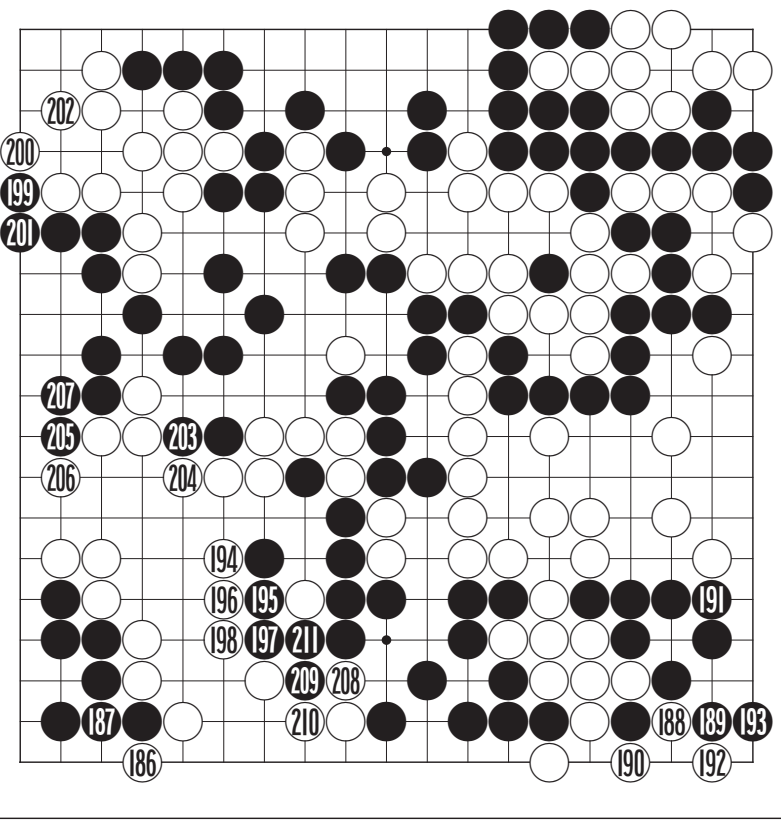
54. 한국 입양아 출신 미국 스키 스타가 최근 한국에 사는 친아버지와 26년만에 상봉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방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아버지를 확인한 이 선수는 지난해 토리노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모굴에서 동메달을 딴 뒤 한국계 입양아임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토비 도슨 ② 하인스 워드 ③ 우르술라 메이스 ④ 소냐 크로퍼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8일(음 1월 19일 辛酉)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March 8th.



제35기 이변이 벌어지다 11보(186~211) 박정상, 배준희 꺾고 명인전 1승

이변이 벌어지다 11보(186~211) 박정상, 배준희 꺾고 명인전 1승. 요즘 신예들의 바둑을 보면 마무리에 유독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여간해서는 역전을 당하지 않는다. '신산(神算)'이라는 칭호를 듣는 이창호 9단의 영향으로 계산과 끝내기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까닭일 것이다. 좌학이가 별 대가도 없이 6집이나 내고 살아가는 사실상 승부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으로 무려 15집 정도의 차이가 난다. 조훈현 9단도 이미 패배를 각오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갖 입단한 새까만 후배에게 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지 계속해서 끝내기를 하고 있다. 아마도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백 188부터 흑 193까지는 백의 권리이며 예정된 끝내기. 그런 다음 194로 중앙을 막아갔는데 흑도 205로 쫓혀 마지막 남은 큰 곳을 차지했다. 이것으로 모든 변수는 사라졌다. 조훈현 9단은 상기된 얼굴 표정을 감추지 못한채 몇 수 더 두어 보다가 흑 211을 보더니 드디어 항서를 썼다. 천하의 조훈현이 새까만 초단한테 무너지는 이변이 벌어진 것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F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박정상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5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배준희 초단을 291수 만에 백 6집 반으로 꺾었다. 이 대국에서 박 9단은 과감한 우주류 포석을 시도하며 의욕을 선보인 배준희 초단을 노련미로 압도했다. 배 초단은 지난 2005년 12월에 입단한 신예로 지난해 목진석 9단, 풍지여 7단 등을 이기고 삼삼화재배 본선에 진출해 화제를 모았다. 이 대회의 총상금 규모는 7억원이며, 우승상금은 1억원(준우승 3천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 2시간, 60초 초읽기 3회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56> 오하오우 니혼고 <856> 니하오 쥅구워 <47> 한자 이야기 <474>

My MP3 doesn't work. 제 MP3가 고장났어요. A: My new MP3 doesn't work. B: What's the problem? A: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it. B: Oh, you got it only a week ago. A: 새로 산 MP3가 고장났어요. B: 왜요? A: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B: 아이쿠, 겨우 일주일 전에 샀잖아. doesn't work : 고장나다 out of order : ~공공 시설이 고장난 breakdown : (일반적인 물건, 시계, 핸드폰 등) 고장나다 My brain doesn't work. : 지금 나는 정신이 없다(스트레스, 바쁨, 피곤한 때문에)

部屋(へや)汚(きたな)いよ 방 더럽다. A: 部屋(へや)汚(きたな)いよ. B: そう? A: 掃除(そうじ)したした方(ほう)がいいよ. B: 面倒(めんどう)くさい. A: 방 더럽다. B: 그래? A: 청소 좀 하니까 좋겠어. B: 귀찮아. 掃除(そうじ): 청소 面倒(めんどう): 귀찮음 -くさい는 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됩니다. 汚(きたな): 더럽다. おやじくさい: 아저씨 같아 うそくさい: 거짓말 같아 -여기서는 くさい가らしい(~~같다)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现在几点? 지금 몇시예요? A: 现在几点? xiànzài jǐdiǎn? B: 现在几点半? xiànzài jǐdiǎn bàn. A: 几点? jǐdiǎn? B: 几点半? jǐdiǎn bàn. A: 지금 몇시예요? B: 다섯시 반입니다. A: 几点半? jǐdiǎn bàn? B: 六点半. liùdiǎn bàn.

斬新(참신) 목벌 참, 새로운 신. 참신(斬新)은 '새롭고 산뜻하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본래 참(斬)은 수레(車)와 도끼(斤)의 합성자로 옛날에 사형을 집행하던 형벌이었다. 수레에 사지를 묶어 사방으로 당긴 다음 도끼로 목을 자르고 갈기갈기 찢는 것이 거열형(車裂刑)이다. 곧 참(斬)은 사지를 찢는 형벌이었고, 뒤에 '쫓개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신(新)은 립(立)+목(木)+근(斤)의 합성자로 나무꾼이 나무를(木) 도끼로(斤) 잘라 세워 놓은 것(立)을 의미한다. 즉 장작이나 땃감이다. 따라서 '참신'의 본뜻은 '땃감(장작)을 패는 것'이다. 여기서 나무를 자르고 나면 속 면이 희고 깨끗하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자른 면은 새롭고 깨끗하다. '참신한 사람'이란 표현은 '나무를 쪼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무를 쪼개 면에서 느끼는 '새롭고 신선함'을 살려 '새로운 인물'이라는 뜻이 된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서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